

국제적 감각을 지닌 디자인 리더: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1996

디자인진흥원사

- 산업디자인연수원 초대 유호민 학장 취임
- KIDP 부설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IDAS) 개교
-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디자인전》 개최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법률 제5214호)
-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선정

한국 디자인사

-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 신설
- 초중고 교과서에 산업디자인 내용 수록
- 타이포그래피 전문잡지 『정글』 창간
- 세계화추진위원회 '디자인산업 세계화 방안' 마련
- 서울시 휘장 시민 공모
- 현대차 스포츠카 티뷰론 출시

한국 사회사

- 영화 사전검열 위한 결정
-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결정
- OECD 가입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 디자인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 디자인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당시 산업디자인이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발전해 온 독일, 영국을 비롯한 해외 디자인 선진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 전액을 지원받는 특수 산업디자인 대학교와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는 산업계와 학계가 연계해 실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력으로 산업디자인 선진국의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대학의 산업디자인 관련 배출 인력은 수만 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어냈지만, 산업디자인 학과의 80퍼센트가 미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이 미흡했다. 이로 인해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기업에 입사한 인력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재교육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당시 통상산업부는 예술 성향이 강한 기존 디자인 교육과는 차별화한 공학, 기술, 마케팅, 경영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중시하는 커리큘럼을 설계해 KIDP 부설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IDAS)을 설립했다. 이 대학원은 학부 과정 없이 산업디자인 석사 학위를 인정하는 단설 대학원으로, 1996년 9월 3일 개원했다. 실무 중심의 엘리트 디자이너, 국제적 감각을 지닌 디자인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이 목적이었다.

개원 당시 초대 이사장으로 윤영석 대우그룹 총괄회장이 선임되었고, 학장은 유호민 당시 KIDP 원장이 선출되었다. 전기 및 전자 디자인, 기계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리고 유리 디자인, 스포츠화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중 2개 분야를 선택하게 했으며, 기존 대학원과는 달리 연간 3학기제였다. 전임 교원은 외국인 산업 디자이너 및 교수로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했다.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의 개원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지고 실무 교육이 부족했던 기존의 산업디자인 교육계에 큰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9년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자인혁신정책과정(DIP)인 뉴밀레니엄 과정(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했고, 2001년부터 박사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자인 전문 대학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1호 디자인혁신센터(DIC)와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를 개원해 최신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건동 부지가 홍익재단에 매각됨에 따라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은 홍익대학교로 합병되었고, 2004년부터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준공식